

<2020 레지던시 매치에 합격한 동문들을 소개합니다.>

박종한 (2008 졸): Rutgers New Jersey Medical School, NJ – Internal Medicine



저는 2008 년 졸업 후 3 년간 서울대학교 의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실험실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모교 병원에서 인턴 및 내과 수련을 받고 국립나주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였습니다. 신약개발 초기 임상 및 중개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미하여 레지던트를 준비하였고, Rutgers NJMS program 에 매치되었습니다. 레지던트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채영광 (2002 졸) 선배께서 Northwestern University 의 Development Therapeutics Clinic 을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초기 임상 시험 진료와 연구의 경험을 쌓고 향후 진로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레지던트 후의 계획은 신약개발 초기 임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혈액종양내과 펠로우십 수련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Jackson Laboratory for Genomic Medicine 에서 암 유전체와 병리 조직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deep learning)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과 4 학년 시절에 두 명의 동기와 함께 MEXIM (More EXperience In Medicine) 동아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병원에 실습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받은 조언과 응원 그리고 Green Project 의 시작을 준비했던 시간이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해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따뜻한 환대와 응원을 받고 타국에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따스함을 느낀 것은 우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황정연 (2016 졸): Detroit Medical Center/Wayne State University, MI – Neurology



본과 4 학년 때 그린프로젝트 후원을 받아 University of Pennsylvania 로 선택실습을 다녀온 후 양질의 미국의 수련 환경을 보고 매치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3 년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며 USMLE 준비와 논문 작성을 병행하였습니다. 덕분에 Neurology 잡지에 논문이 실리기도 하고 미국수면학회에서 발표자로 서기도 하였지만, USMLE step 이 여러 단계인만큼 길었던 매치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않은 않았습니

다. 매 시험, 모든 단계마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오랜 준비 기간 동안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준 지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 같지만, 매치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길이 열린다는 것, 혼자 보다는 함께 하였을 때 과정이 수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유정 (2017 졸):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NY – Pediatrics



시간에 덜 쫓기는 진료환경과 유하고 지지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꿈꾸던 중, 선배님들의 조언으로 미국행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본과 4학년 선택실습 기간에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서 뉴욕 주변지역에 실습 온 학생들을 뉴욕으로 초대해주셨는데, 그 때 여러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국행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당시 인연을 맺었던 서인석 선배님께서는 이후에도 제가 두 번 더 미국에서 실습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 감사한 인연이 계속 이어져선배님께서 재직중이신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에 매치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를 중단해야 했던 때도 있었고, 밤에는 당직 아르바이트를, 낮에는 공부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시험과 매치 지원, 인터뷰 여행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응원을 해주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던 가족들 덕분에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고, 드디어 미국에서의 수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영어와 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긴장도 걱정도 되지만, 제가 바라던 의사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훨씬 큼니다. 열심히 배우고 자리잡아 앞으로 미국으로 올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 선배님들의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대인 (2017 졸): Mount Sinai Beth Israel, NY – Internal Medicine



선택의학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의 의료환경을 접했던 2016년 본과 4학년 여름이 생각납니다. 한국과 달리 천천히 진행되는 외래와 진료에서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각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돈독한 환자-의사의 관계형성과 더불어, 질병 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까지 챙기는 환자 중심의 진료형태에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이에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직후부터 3년간 공중보건의로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2017년 2월 Step 2CS, 2018년 2월 Step 1, 2018년 9월 Step 2CK, 마지막으로 2019년 3월 Step 3 시험을 보았습니다. 복무 기간동안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9년 11~12월에 인터뷰를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국-미국을 2주 간격으로 3번 오가면서 인터뷰와 진료업무를 병행했던 것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로사로 복무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국내 보건사업, 올림픽 등과 같은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모교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등으로 인해 인터뷰어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매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4년 전미주동창회의 지원으로 우연히 경험한 한 달 간의 교환학생 기간이 제 미래를 이렇게 크게 뒤바꿔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외는 여행이 아닌 목적으로 생활해본 적도 없고, 친척을 포함한 가족들 중에도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없기에 홀로 시작하는 인생 2막이 설레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저를 비롯한 동문들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2018 졸): Beaumont Children's Hospital, MI – Pediatrics



안녕하세요? 2018년도 졸업생 이지원입니다. 이번에 Royal Park, Michigan에 있는 Beaumont Children's Hospital에서 소아과 전공의로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족이 있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attending들과 전공의들 사이에 끊임없는 two-way feedback system이 존재하는 미국 전공의 수련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었으며, 다문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질병군과 서로

다른 문화, 인종,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2018 년도에 졸업하고 2018-19 년도에 스텝 1, CS, 그리고 CK 시험을 보았고, 시험/매치 중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때와는 달리 다른 동기들 없이 혼자서 준비해야 되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치 때 서류 작업들이 많았는데, 추천서를 받는 것이 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꿔왔던 미국에서 전공의로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인종 문화 등 사회 여러 면에서 소수자 계층의 환아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어 소아과에 지원을 하였는데, 환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지 (2019 졸):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 Internal Medicine



저는 2019 년도 의학과 졸업생 김명지입니다. 올해 레지던트 매치에 도전하여 Florida 주의 Memorial Hospital West 내과 프로그램에서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과 1 학년 때부터 미국행을 고민하다가 본과 4 학년 여름방학에 결심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둔 수련 환경, 한국과는 조금 다른 환자-의사 관계, 다양한 질환의 스펙트럼, 연구 참여 기회, 일과 삶의 균형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 레지던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하고, 4 학년 말이었던 2018 년 11 월 CK, 2019 년 2 월 CS, 6 월 Step 1, 8 월 Step 3 순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매치는 첩첩산중을 넘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간 논문이 없고, 미국 임상 경험(USCE)이 선택실습한 달 밖에 없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위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6 월에 미국 이주를 앞두고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고 가지는 않을지, 필요한 건 다 챙길 수 있을지 사소한 불안감도 듭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에 과연 병원 생활에 지장은 없을지도 걱정입니다. 이제 의사로서의 경력을 갖 시작하기에, 레지던시 이후의 커리어를 다져감에 있어서도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본보기를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림 (2019 졸):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Midtown Campus, MD –

Internal medicine



미국에 가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달 정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낼 기회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수많은 한국인들이 타지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갔는데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 분들은 먼 미국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과 동시에, 왠지 미국에서 사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고, 나 역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약

70 년이라 가정했을 때,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기에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의 미국행에 대한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도전을 시작하기까지는 쉬웠지만 미국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관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를 얻는 것부터, 힘들게 통과해야만 했던 총 4 번의 시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보니 해외 병원에서 2 달간 선택실습을 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실수하지는 않을까 떨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해외에서 살 계획이 전혀 없었던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 된 그 남자친구는 제가 의대를 마치는 동안 홀로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해나갔고, 4 년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도 하고, 얼마 전 6 개월 된 딸도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매릴랜드 볼티모어에서 내과 1 년차를 시작합니다. 포기할까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먼저 이 길을 가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꿈만 같았던 오피 레터에 서명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2008 졸):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MA - Internal Medicine



저는 2008 년 졸업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및 내과 전공의 수련을,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암유전체학 박사과정을 마친 뒤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 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를 퇴국한 이후 어느덧 거의 7 년간을 진료실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임상 방면으로는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지침 정립 (2014 JAMA), 약제 내성 기전 규명 및 특이적 바이오마커 발굴 (2017 JCO), 최근에는 비흡연자 폐암 발생의 시작 단계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translocation 의 기전을 규명하였습니다 (2019 Cell). 본래 full-time scientist 로 faculty position 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진료실에서 출발한 제 과학의 특성상 환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들의 병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암 분야를 통해 저를 알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이번 매치에 도전하였고, 1 순위로 지망한 BWH 에 매칭되었습니다. 지금 제 오피스 바로 옆 건물이 BWH 이고, 지난 3 년간 출퇴근길에 늘 그 복도를었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종양내과 분야의 리더가 되어 새로운 치료를 개발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김지혜, 신상하 (2018 졸):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 Internal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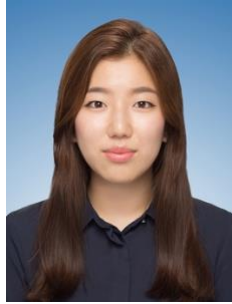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오랜 준비 끝에 미국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하게 된 신상하, 김지혜 부부입니다. 둘 다 학부를 미국에서 졸업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여러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오신 선배님들의 강연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 들으면서 꿈을 키웠고, 특히 MEXIM 동아리 회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도 자주 참여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 덕분에 부딪혀 보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며 준비할 때도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하금까지 세세히 마련해주신 것을 보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먼저 가신 선배들께서 모교의 학생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힘도 합쳐진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커플 매치에 성공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좋은 기회를 잡은 만큼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겠지만 레지던트 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지영 (2019 졸): UPMC 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 PA - Pediatrics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년 졸업생 이지영입니다. 저는 의료 봉사와 국제보건에 관심이 많던 차에 본과 4 학년 때 미주동창회 Green Project 후원으로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에서 미국의 의료 환경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열정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도전에서 많은 바를 느끼고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 받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선 자격을 갖추고 고민을 해보자는 계획으로 재학생 때 USMLE Step 1, 2 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국가고시를 치르고 졸업 직전에 소아과 실습을 UPMC 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 로 다녀온 후 여기에서 다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USMLE Step 3 와 긴 매칭 시즌을 지나 소아과 전공의로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꿈같이 주어졌습니다. 제 도전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관문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도, 미주동창회에도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